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4004.85	코스닥	891.94
	(+75.34)		(+20.62)
금리 (한국예 9년)	2.908	환율 (원·달러)	1468.75
	(+0.039)		(+3.15)

엔저·日中갈등… 韓 수출·외교 압박

‘日리스크’ 韓경제 변수 부상
엔화 추락에 원화도 ‘동조’
대만해협 위기, 불확실성 ↑
韓 반도체·물류 충격 불가피

엔저와 일(日)·중(中)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엔화 약세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형태가 비슷해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對)중국 외교적 ‘균형’ 전략에 부담이다.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물류·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 일본, 대규모 완화정책 시행
20일 니혼게이지(닛케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21일 2025회계연도를 위한 14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해당 재원은 난방 보조금, 유류비 지원 등 물가 안정 및 소비 부양책에 사용되며, 닛케이(닛케이)는 투자·융자 등 비용을 합산한 총재원이 20조엔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조엔은 일본의 연간 총생산(GDP)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함께 엔화 가치 하락 전망이 확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이전부터 적극적인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의 ‘아베노믹스(아베+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에 이를 빚댄 ‘사나에노믹스’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다.

◆ 10개월 만의 ‘초엔저’…원화 영향 불가피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 전환한 올해 1월 말 이후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다.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증가(오후 3시 30분 증가) 기준 1465.6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겼던 지난 13일과 비교해서는 소폭 잦아들었지만, 정부의 개입에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엔화의 약세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非)기축통화인 원화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엔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일 양국은 수출경합도도 높아, 엔화의 약세는 수출



한미연합 도하훈련 실시

한미연합 도하훈련이 실시된 20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장병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11기동사단,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뉴시스

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산업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분기 기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경합도는 46.8(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함)로 주요국 가운데 1위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린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정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 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11월 27일



코스피 4000선 탈환 AI 모멘텀 회복에 반등

엔비디아 호실적에 투심 자극
뉴욕·아시아 증시 일제 상승

행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코스피를 다시 4000선에 올려놨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25% 상승해 ‘10만 전자’(종가 10만600원)에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1.60% 상승했다.

2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92% 오른 4004.85에 마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코스피는 18일 종가 기준 4000선이 붕괴됐었다. 하지만 전날 인공지능(AI)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심을 자극했다.

전날 뉴욕증시도 ‘엔비디아발 훈풍’이 거세게 불었다. 다우평균은 0.1%, S&P500 지수는 0.4%, 나스닥은 0.6% 올랐다. 특히 장 막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엔비디아(2.9%), 알파벳(3.0%), 테슬라(0.7%), 애플(0.4%)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클라우드 GPU는 사실상 품질 상태이며, AI 생태계는 각국·각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새 AI 모델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2.65% 급등했고, 호주 ASX 200과 대만 자취만 등도 반등했다.

이어 “AI는 이미 모든 곳에 스며들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

월가와 국내 증권가에서는 “AI 거품 논란은 진정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1경원 시장 ‘피지컬 AI’… 소부장·센서 투자가 관전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유태준 “물리적 투자 필수”

생성형 AI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기술·산업계의 화두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물리 세계의 AI’로 확장된 피지컬 AI로 이동하며 새로운 무인화 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 협회장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을 주제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관련기사 L7·L8면〉

이날 축사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조풍연 한국IT·SW총연합회 회장, 유태준 피지컬 AI협회 협회장이 맡았고 개회사는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했다. 이장규 대표는 고(故) 이견

희 삼성 회장이 1996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편지를 보냈던 일화를 언급하며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 레토릭보다 돈이 말하는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유태준 한국 피지컬 AI협회장은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정의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AI 예산 100조’ 공약이 GPU 구매에만 쏠리는 것을 우려해 협회를 결성했다”며 “센

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물리적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가져올 ‘1경 원’ 규모의 시장 기회와 과제를 제시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육체노동 시장의 10%만 로봇이 대체해도 약 1경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며 이를 ‘인류 최초의 무인화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AI 레디 바디(AI Ready Body)’를 갖춘 국가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 ▲與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 법원 원칙따른 분명한 결론내야”
- ▲장동혁, 3선 중진들 만나 “투쟁 동력 살릴 것” … 패트 1심 선고 촉구 /사진 뉴시스

- ▲조원철 법제처장, EU대사 면담… ‘법제 협력’ 강조
- ▲김종민 의원, 민주당 복당 첫 공식 언급… “민심 듣고 결정”

-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해야… 압수수색 촉구”
- ▲1800t급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 성능개량 사업 착수